
		<b>보 도 자 료</b>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1년 12월 23일(목) 총 3매	 환경특별시 인천			
담당 부서	자치행정과	담당자	• 생활치료센터운영팀장 서만식 ☎440-3301 • 담당자 이대성 ☎440-3303			
사진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시, 생활치료센터 추가 개소 등 방역에 ‘총력’

- 인천대 생활치료센터 추가 개소로 총 7개소, 1,486명 수용 가능 -
- 박 시장, 인천대 생활치료센터 등 방문해 휴일 현장 점검 및 관계자 격려 -

인천시는 안정적인 생활치료센터 병상 확보를 위해 인천대와 제1기숙사를 사용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생활치료센터로 신규 지정해 병상자원 추가확보에 나섰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12월 23일부터 인천대 생활치료센터의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정부의 재택치료 기본원칙에 따라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소아·장애 등 돌봄이 필요하나 보호자와 공동격리가 불가능한 자 등 재택치료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인천대 생활치료센터는 195실 규모로 390명의 환자를 수용 가능하며 코로나19 항체치료제 주사실을 별도로 마련해 입소 환자의 치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로써 인천시는 생활치료센터 총 7개소에 1,486명의 환자를 수용할 수 있게 됐으며, 올해 말 사용종료 예정이었던 하나글로벌연수원, 포스코인재창조원 생활치료센터 등 민간기업 센터시설도 연장이 합의되어 코로나19의 가파른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타시도에 비해 안정적인 생활치료센터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 기존 6개소 (영종 경정훈련원, sk 무의연수원, 청라 하나글로벌연수원, 송도 포스코인재창조원, 서구 크리스탈호텔, 신화유스호스텔)

그동안 신속하고 광범위한 선제검사를 통해 모범적인 인천형 방역을 실천해온 인천시는 재택치료 원칙에도 증가세를 보이는 생활치료센터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에 한층 더 힘을 쏟고 있다.

한편, 박남춘 시장은 오는 성탄절을 맞이해 인천대 등 관내 생활치료센터와 보건환경연구원 등 방역현장을 점검하고 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노고가 많은 근무자를 격려하는 등 현장 중심 행정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붙임〉 사진자료

